

## **Forced Conversion in South Korea Should Be Put to an End:**

### **An Open Letter to President Moon Jae-in**

한국의 강제 개종을 근절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Dear President Moon:

문재인 대통령님

We represent international NGOs and scholarly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researching religious pluralism and new religious movements throughout the world, and advocating for religious liberty.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와 세계의 새로운 종교 운동을 연구하고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국제 민간단체와 학술 단체를 대표합니다.

South Korea is a democratic country in an area where several totalitarian regimes persecute believers of all religions. We commend your government's efforts to speak out for human rights and religious liberty in Eastern Asia.

여러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 모든 종교인이 박해받는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인권과 종교 자유를 옹호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At the same time, religious liberty is a fragile human right. All countries have their own problem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mall or unpopular minorities. As the United Nations stated in CCPR's *General Comment No. 22* to Article 18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8 is not limited in its application to traditional religions" and condemns "any tendency to discriminate against any religion or belief for any reason, including the fact that they are newly established, or represent religious minorities that may be the subject of hostility on the part of a predominant religious community."

동시에 종교의 자유는 취약한 인권입니다. 국가마다 각기 다른 인권 문제가 있으나 특히 영세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집단에 있어서는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 제18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자유권규약위원회(CCPR)의 일반 논평 22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제18조는 그 적용에 있어 대상을 전통 종교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신생종교이거나 영향력이 큰 종교 세력으로부터 적개심의 대상이 되는 소수 종교

를 포함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종교나 신념에 대한 일체의 차별적 경향을” 규탄합니다.

South Korea hosts a large number of successful Christian new religions. The fact that they have non-conventional theologies and grow by converting members of traditional Christian churches make them the target of hostility by some mainline denominations. Obviously, theological criticism is itself part of religious liberty. It is an entirely different matter when adult members of new religions are kidnapped, in most cases by their parents, kept in a situation of confinement, and submitted to all sort of pressures by specialized “counselors” or “deprogrammers,” who are often pastors of the mainline churches, to forcibly compel them to abandon their faith and “convert” them back to the religion of their parents.

한국에는 많은 수의 성공적인 기독교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통적인 신학과, 전통적인 교회의 교인들의 개종으로 그 교세가 성장한다는 사실 때문에 일부 유력 교단에서는 이들을 적대시합니다. 분명히 신학적 비판 자체는 종교 자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인인 신흥 종교 교인의 납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부모에 의해 납치되어 감금당한 채 주로 주류 교회의 목회자인 이른바 전문 ‘상담사’ 또는 ‘개종 목사’에 의해 갖은 압력을 받아 강제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부모의 종교로 다시 ‘개종’할 것을 강요 받습니다.

We have seen all this before. Kidnapping and “deprogramming” members of groups disparagingly labeled as “cults” was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20<sup>th</sup>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til courts of law there banned the practice as illegal and several deprogrammers went to jail. The practice continued in Japan, but ultimately was declared illegal there, too.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전에도 보았습니다. ‘이단’으로 폄훼하여 분류된 단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강제개종’은 20세기 미국과 유럽에서 자행되어 해당 법원에서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몇몇 강제개종자를 감옥에 보낼 때까지 계속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행태가 지속되었으나 결국 일본에서도 불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South Korea may well be the last democratic country in the world where deprogramming is still tolerated, perhaps because the Korean ethos regards it as a “family matter” and believes that parents have authority on their children, even if they are adult and may be 30 or 40 years old. This, however, should not authorize parents to commit serious crimes.

아마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는 강제개종이 여전히 용인되는 마지막 국가일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정서 상 이를 '가족 문제'로 간주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30세, 40세가 되어도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Other groups are targeted too, but we are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members of Shincheonji, which reports 1,444 deprogrammings since 2003. Two members of Shincheonji, Ms Kim Sun-Hwa in 2007 and Ms Gu Ji-In in 2018 died during attempts at deprogramming. For Gu, this was the second deprogramming, after a previous attempt in 2016 had failed. Those involved in the deprogrammings claimed deaths were unrelated to the forced conversion process, but co-religionists believe otherwise. Even after Gu's death, more than 100 deprogrammings were reported.

다른 단체도 피해 대상이 되었으나, 우리가 특히 우려하는 대상은 2003년 이후로 1,444건의 강제개종이 보고된 바 있는 신천지예수교 교인들입니다. 2007년 김선화 씨와 2018년 구지인 씨는 강제개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구 씨의 경우 2016년 강제개종에 실패한 후 두 번째 강제개종 시도였습니다. 강제개종 관련자들은 사망원인이 강제개종 과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종교인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구 씨의 사망 이후에도 100건이 넘는 강제개종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Once again, theological controversies about Shincheonji are not the problem here. Everybody is free to criticize Shincheonji's theology or proselytization strategies, and of course Shincheonji should also be free to criticize the theology of other churches. Kidnapping and false imprisonment, however, not to mention murder, are crimes.

여기서 신천지에 관한 신학적 논쟁이 현안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신천지 신학이나 전도 전략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으며 물론 신천지도 다른 교회의 신학을 비판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납치와 감금은 범죄입니다.

Deprogramming is also supported by hate speech going well beyond the normal boundaries of religious controversy and de-humanizing members of Shincheonji, thus justifying and preparing violence against them. Specialized institutions called "Cult Seminars" have a key role in propagating these forms of hate speech, while "Cult Counseling Offices" operated by some mainline Christian churches and pastors incite relatives to kidnap adult children and put them in touch with the deprogrammers.

또한 강제개종에는 정상적인 종교 논쟁의 범주를 한참 넘어서는 혐오발언과 신천지 교인에 대한 비인격적 취급이 뒷받침되어 해당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단세미나’라고 하는 특수한 기관은 이러한 혐오발언을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주류 개신교회 및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이단상담소’에서는 친족들을 부추겨 성인 자녀를 납치하여 강제개종목자와 접촉시키도록 합니다.

Dear President Moon, we ask your intervention in persuad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hat it is great time to investigate Cult Seminars and Cult Counseling Offices, act against hate speech, investigate in depth accusations of forcible deprogramming, put a stop to this obnoxious practice, and hold those responsible fully accountable.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는 대한민국의 관련 당국에 지금이 이단세미나 및 이단상담소를 조사하고, 혐오발언에 대처하고, 강제개종에 대하여 제시된 심대한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이 추태를 근절하고, 관련자들에게 온전히 책임을 물을 때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대통령께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We know that you attach great importance to democratic values and human rights. The respect of human rights is the key element for the international reputation of a democratic country and its leaders. Those Shincheonji members who are kidnapped and abused are Korean citizens, women and men whose human rights are brutally violated. A statement on this matter was filed at the Forty-fir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and attracted international attention. Should kidnappings and coercive conversions continue in South Korea,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come more and more focused on these gross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nd the institutions of your country will be increasingly criticized. Your personal intervention is urgently needed.

문 대통령께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은 민주 국가와 지도자들의 국제적 명망의 핵심 요소입니다. 납치되어 학대당하는 신천지 구성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그들의 인권은 무자비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사안에 관한 성명서가 제출되었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 납치와 강제 개종이 지속된다면, 국제 사회의 관심은 한국의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점점 더 집중 될 것이며, 귀국의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급합니다.